

# 전북경찰, 여중고 담당 여경 배치

학교전담경찰관(SPO)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도내 여중학교 여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모두 여경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과 경찰의 부적절한 관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 북지역 총 33개 여교를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모두 여경으로 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지 방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담당 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

## 교육·심리학 전공자 학교전담경찰 우선 배치키로

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경찰관과 여 학생의 접촉을 원천 차단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도내 19개 여중의 학교전담경찰관도 모두 여경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중 여경은 총 22명이다. 전북지역 총 775개 초중고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 관은 총 72명으로, 경찰관 1인당 10개 학교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차적으로 여중·고등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모두 여경으로 전환하고, 아동·청소년 교육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경찰관을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 북경찰청은 현재까지 학교전담경찰관 과 관련, 부산경찰청과 유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 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첩보가 접수된 것은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실질적으로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2월 출범한 학교전담경찰관은 최근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교 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경찰관 한 명이 10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전시성 행사에 집 중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안진수 기자

## 고의 교통사고로 거액 보험금 행간 50대 검거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켜 거액의 보험금을 행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고의로 차량을 불에 빠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불에 빠뜨리거나 교통시설물을 들이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차량의 시동을 끈 뒤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 밀어 빠뜨려 침수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험사를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진수 기자



한상균 위원장 징역 판결 규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 징역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중진(오른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사성행위 알선 '키스방' 업주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4일 속칭 '키스방'을 차려놓고 고객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어간한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45)씨 등 2명에 대한 혐오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고, 600만 원씩 추징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익산시내 한 건물에 보드게임방을 위장한 키스방을 차린 뒤 여중생원을 상주시키면서 미리 예약한 손님 을 상대로 1시간당 7만~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연구용역 추진

### 2020년 목표 감량계획 등 수립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지역개발 및 인구변화, 기후변화 등 지역여건과 대내외적 환경의 변동추이 전망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 시는 올해 처음 이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전주시 전 지역 가정과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지난 5년간(2011~2015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발생량을 예측,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 기초조사와 함께 자

연적·사회적·경제적 변화와 인구집중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을 전망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20년을 목표로 한 발생억제지표와 일반가정과 대형음식점 등 다량 배출지에 대한 감량계획, 적정 처리계획,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발생억제 목표달성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처리에 대한 기본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 전주보건소, 성장단계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전주시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후 4개월부터 만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상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올바른 영양관리 및 돌연사 증후군 예방등 건강교육을 통해 영유아 시기별로 필요한 육아 지침이 제공된다. /김영재 기자

보건소는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 가능기간을 산정했다. 검진 시기는 생후 4개월과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등 총 7회이며, 생후 18개월과 42개월, 54개월 건강검진 시에는 일반검진기관 및 치과를 방문해 총 3회에 걸쳐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을 실시하고,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구성된다. /김영재 기자

## 전북대병원, 다문화가족 의료비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경제 어려움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일 전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회장 김문강)와 다문화가족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는 도내 14개 지역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이번 협약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가 추천하는 건강보험 중위소득 80% 이내의 다문화가족에게 사업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250만원 이내의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장애인 거주현황 전국 첫 온라인 지도제작

### 254개 사회복지시설 검색 가능

전주시 장애인 거주현황과 사회복지 시설 현황을 총망라한 온라인 지도가 제작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전주시 거주 등록 장애인 주거지역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간적 분포'를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지도는 장애인 정책 수립 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핑작업을 중심으로 제작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분포도'와 각 유형별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온라인 지도 상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 지도'로 나뉘어 제작됐다.

'장애인 거주분포와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간적 분포' 온라인 지도에는

전주시 전체 장애인분포와 영역별 장애인 분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접근성 분포 등을 지도상에 분석했으며,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분야별 정보의 '가족/보건/복지 사업 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는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노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소년시설, 기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8대 유형별로 전주시 254개 시설별 위치와 전화번호, 행정동, 홈페이지 주소, 시설유형이 안내된다. 시는 시민들이 이 지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현황을 담은 지도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장애인 정책 수립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소지가 확인된 전주시 장애인 3만2945명의 분포현황을 지도상에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로 표시하고, 장애인의 거주인원 수준에 따라 색을 표시하고 각 지역별 표준편차를 구한 장애인 거주분포 지도도 함께 제작했다. /김영재 기자

##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